

## \*\*조선조 영건의례를 통한 수장제 용어에 관한 연구

- 궁궐건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inishing Material terms analyzed the Building Specifications in Chosun Dynasty

- limit the palace construction work -

홍석주\* / Hong, Seok-Joo

### Abstract

After an important construction work in Chosun dynasty, the appropriate government made out the building specifications as it called 營建儀軌. They are recorded about variety matters as the appointed days, various official documents, managers and craftsmen, etc.. Sometimes we can see the attached pictures about some building or furniture.

Here this study is purposed to prescribe the finishing material terms in Chosun dynasty. So I analyzed the building specifications in Chosun dynasty about the unit of materials and history of each term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1) The interior materials are classified to several units such as Gai(箇;the unit of square lumber or log), Rip(立;the unit of plates), Boo(部;the unit of assembled materials), etc..

(2) The terms are defined and enlightened how to use and how to change.

Particularly, the terms are different positively in constituent units of wooden floor.

So, it is expected to continuant study.

키워드 : 영건의례, 수장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조선조에는 중요한 공사가 끝나면 영건의례라는 것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건축보고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사의 발의 과정에서부터 공사 일정, 자재 수급, 공사 책임자 및 장인, 사용 부재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도면이 첨부되기도 한다. 영건의례는 인조조 이후의 것이 현존하는데 이들을 통하여 다양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영건의례를 발간할 때마다 다른 형식으로 씌어졌고, 오랜 기간동안에 용어의 변화도 있었기에 문헌의 가치에 비해 건축분야에서는 아직 직접적인 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에 발간된 영건의례를 분석하여 수장제의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수장은 구조재가

아닌 중방, 벽선, 반자 등 내부치장이 되는 것<sup>1)</sup>으로서 현대의 개념에 의하면 마감재에 해당된다. 수장제는 그 종류의 방대함으로 더욱더 자료를 통한 연구가 다소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장제의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함으로써 장차 심화된 영건의례연구의 발판이 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수장이라는 용어는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구조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건물의 내부를 꾸민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sup>2)</sup> 따라서, 여기서 수장제라 함은 구조체를 제외한 목조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런데, 현존하는 영건의례 모두를 대상으로 하자면 그 대상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궁궐건축으로 한정하였다.

1)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255

2)세종 2년 4월 10일(무신) ; “서이궁 대청이 내일이면 기둥을 세우고 상량하게 될 것이니, 만약 修粧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울거나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

세종 11년 3월 20일(병인) ; “당,송의 종묘는 비록 占制는 아니으나, 그 체면이 매우 크고 그 안의 수장한 것은”

\* 정회원, 서일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 본 논문은 2004년도 서일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궁궐 건축에 관한 영건의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궁궐에 관한 영건의례 목록

의례명	발간시기	기록 내용
창경궁수리도감의궤	인조 11년	작업소 별 사용자재 수량
창덕궁수리도감의궤	인조 25년	작업소 별 사용자재 명칭, 수량
저승전의궤	인조 26년	총 자재 수량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효종 3년	총 자재 수량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	효종 8년	총 자재 수량
집상전개수감의궤	현종 9년	총 자재 수량
경덕궁수리소의궤	숙종 19년	총 자재 수량
인정전영건도감의궤	순조 5년	건물별 자재 명칭, 수량
서궐영건도감의궤	순조 32년	건물별 일부 자재 명칭, 수량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순조 34년	건물별 자재 명칭, 수량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순조 34년	건물별 자재 명칭, 수량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광무 8년	건물별 자재 명칭, 수량 및 규격
경운궁중건도감의궤	광무 10년	건물별 자재 명칭, 수량 및 규격

인조조에 발간된 의궤들은 작업소별로 기록되어 있어 각각의 건물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으나 자세한 수장재의 명칭들이 나타나 있어서 명칭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고, 순조조에 발간된 의궤들은 건물별로 기록되어 있어 각각의 건물에 사용된 수장재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고종조에 발간된 의궤들은 사용된 수장재의 크기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수장재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

따라서 이들 영건의궤에 등장하는 자재의 명칭과 사용에 대한 내용이 기록을 통해 수장재의 용어 명칭과 단위, 변천 과정을 알아내도록 한다.

## 2. 수장재의 단위

### 2.1. 개(箇)

의궤에 기록된 부재의 단위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단위는 ‘개’이다. 영건의궤에 기록된 자재 중 ‘개’를 단위로 하는 수장재는 다음 표와 같으며 각 용어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논하도록 한다.

‘개’라는 단위는 주로 인방, 중방, 지방, 가지방, 신방 등의 인방류와 벽선, 중깃, 머름 등의 벽체를 구성하는 부재들, 마루, 동바리, 귀틀, 장귀틀, 농귀틀, 장선 등 청판을 제외한 마루 구성재들과 천장의 반자틀과 난간 구성재 등에 폭넓게 쓰였다. 즉, 의궤에 기록된 수장재에서 판재가 아닌 자재들의 단위들은 거의 ‘개’라는 단위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개’는 인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 『창경궁수리도감의궤』, 『저승전의궤』와 효종조에 발간된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에는 ‘介’로 표기되었는데, 현종조에 발간된 『집상전개수도감의궤』 이후에

발간된 『경덕궁수리소의궤』,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서궐영건도감의궤』, 『인정전중수의궤』,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箇’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개’의 표기는 ‘介’에서 ‘箇’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영건의궤에 기록된 ‘개’를 단위로 하는 수장재

위치		명칭
천장	반자틀	大欄, 班子多欄, 班子多案, 純角班子多欄, 退古案純角班子多欄, 房班子多欄, 抹樓班子多欄, 長大欄, 長多欄, 長多案, 純角班子長多欄, 崇閣長多案, 崇閣付多案, 房班子長多欄, 間多案, 多案里, 童大欄, 同多欄, 同多案, 短大欄, 小欄, 小案, 長小欄
	기타	班子引防, 班子虛引防, 懸木, 廣懸壁, 班子毛里木, 紙班子毛里木
벽체	인방	引方, 引防, 短引防, 小引防, 半間引防, 間引防, 虛引防, 雷引防, 交窓引防, 斜窓引防, 雙窓引防, 雙窓合引防, 小雙窓引防, 分閣引防, 短分閣引防, 滿箭分閣引防, 檀作耳引防, 連窓引防, 推障子引防, 壁付引防, 樓門引防, 壁櫺門引防, 大門引防, 雙發阿只引防, 上引防, 中引防, 半間中引防, 下引防
		引中防, 長引中防, 短引中防, 半間引中防, 壁櫺門引中防, 中方, 中防, 短中防, 列中防, 童中方, 分閣中防, 檀作耳中防, 西洋板門中防, 合中防
		地方, 地防, 下地防, 短地防, 加地方, 假地防, 加支防, 連窓加支防, 檀作耳加支防
		信方, 信防, 散信防, 信防龍頭
	벽선	壁檀, 壁檀, 大壁線, 長壁檀, 短壁檀, 土壁檀, 土壁檀, 交窓壁檀, 斜窓壁檀, 雙窓壁檀, 小雙窓壁檀, 分閣壁檀, 短分閣壁檀, 壁櫺門壁檀, 童箇壁檀, 檀單, 檀端, 檀單, 假退檀端, 筒介
	머름	遠音中防, 遠音竹, 短遠音竹, 半遠音竹, 半間遠音竹, 曲頭遠音竹, 遠音童子, 於里童子
마루	기타	中杓, 中杓木, 小杓, 帶, 帶木, 中帶, 橫木, 舍方, 斜木, 架上木
	동바리	童發伊, 童發里, 長童發里, 長散伊, 長散里
	귀틀	耳機, 長耳機, 短耳機, 童耳機, 同耳機, 長童耳機, 短童耳機, 短同耳機, 半間童耳機, 半間同耳機, 間同耳機, 間半同耳機, 假退童耳機, 立耳機, 半間立耳機
난간		十字欄, 童子, 大童子, 小童子, 欄干中防, 欄干耳機, 欄干竹, 上下竹, 中竹, 圓竹, 屈竹, 竹, 法首, 荷葉, 蓮葉, 鷄帶, 鷄子多里
계단		麒麟踏掌梗, 雲橋梗

### 2.2. 입(立)

의궤에 기록된 부재의 단위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단위로 ‘입(立)’을 들 수 있다. ‘입(立)’ 역시 천장, 벽체, 마루, 난간, 계단 등의 구성재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입(立)’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반자판과, 마루를 구성하는 청판들, 난간에 들어가는 허혈 청판을 비롯하여 각종 판재의 수량을 기록하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벽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단위는 앞서 언급하였던 ‘개’를 단위로 사용하였고 ‘용지판’만이 ‘입(立)’을 단위로 사용하였다.

즉 ‘입(立)’은 낱장으로 셀 수 있는 판재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표 3> 영건의례에 기록된 ‘立’을 단위로 하는 수장재

위치	명칭
천장	假盤子板, 花盤子, 鳳班子板, 鳳板, 牧丹班子板, 純角班子板, 巡閣板, 順角板, 上下崇閣板, 後崇閣板, 崇閣廳板, 包崇閣廳板, 內巡角, 外巡角
벽체	龍脂板
마루	靑板, 抹樓靑板, 假退廳板, 長廳板, 長橫廳板, 退長廳板, 假退長廳板, 抹樓長廳板, 樓長廳板, 短廳板
난간	虛穴廳板
계단	踏掌板, 踏掌四坐板, 層橋挾板
기타	念衣板, 廉隅, 廉隅板, 余隅

## 2.3. 기타

‘개(箇)’와 ‘입(立)’ 외에 영건의례에 기록된 수장재의 단위로 ‘좌(坐)’, ‘부(部)’, ‘작(隻)’, ‘쌍(雙)’, ‘칸(間)’이 있는데, 사용된 기록을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영건의례에 기록된 수장재의 기타 단위

단위	위치	명칭
좌(坐)	천장	龍板
	계단	踏掌, 層橋, 雲橋
부(部, 浮)	머름	遠音, 四面架子多里遠音, 後遠音, 半間遠音
작(隻)	천장	班子, 紙班子
쌍(雙)	천장	板龍, 浮龍
칸(間)	천장	板班子
	마루	抹樓

### (1) 좌(坐)

영건의례에 기록된 ‘坐’라는 수장재의 단위는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의 ‘용판(龍板)’과 ‘답장(踏掌)’, ‘운교(雲橋)’, ‘층교(層橋)’의 단위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용판(龍板)’은 ‘판룡(板龍)’이나 ‘부룡(浮龍)’이라는 부재와 함께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판룡(板龍)’이나 ‘부룡(浮龍)’이 설치되는 판재로 보인다.

한편, ‘입(立)’의 단위로 쓰인 ‘답장판(踏掌板)’, ‘층교협판(層橋挾板)’, 그리고 ‘개(箇)’의 단위로 쓰인 ‘답장경(踏掌梗)’, ‘층교경(雲橋梗)’과 달리, ‘답장(踏掌)’, ‘운교(雲橋)’, ‘층교(層橋)’는 ‘좌(坐)’로 표기되었다. 즉 개개의 단위를 나타낸 ‘개(箇)’와 ‘입(立)’과는 별도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답장(踏掌)’, ‘운교(雲橋)’, ‘층교(層橋)’의 단위로 쓰인 ‘좌(坐)’는 완전히 설치 가능한 단위로 보인다.

### (2) 부(部)

‘부(部)’는 ‘원음(遠音)’<sup>3)</sup>, ‘사면가자다리원음(四面架子多里遠音)’, ‘후원음(後遠音)’, ‘반간원음(半間遠音)’ 등의 단위로서 주로 머름에 사용되었다.

3)원음(遠音)은 머름을 말한다.

머름의 구성재로 ‘개(箇)’의 단위로 쓰인 ‘원음중방(遠音中防)’, ‘원음죽(遠音竹)’, ‘원음동자(遠音童子)’와는 달리 표기된 것으로 보았을 때 ‘부(部)’ 역시, 설치되는 하나의 단위로 보인다.

### (3) 작(隻 척)

영건의례에서 청판, 순각판, 여모 등의 단위로 사용된 ‘立’은 주로 판재의 형태를 갖춘 부재의 단위로 사용되었지만, 반자의 단위는 ‘隻’으로 표기하였다. ‘隻’은 ‘척’으로 읽기보다는 ‘작’으로 읽는다. 작의 유사음의 한자로 ‘隻’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의하면 반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반자’라고만 표기된 부재와 ‘지반자’의 경우는 ‘작(隻)’을 쓰지만 ‘화반자(花班子)’의 경우는 ‘작(隻)’이 아닌 ‘입(立)’이 쓰였다.

### (4) 쌍(雙)

‘쌍’이라는 단위는 『중화전영건도감의궤』와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서 볼 수 있는데, ‘판룡(板龍)’과 ‘부룡(浮龍)’의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 즉, 쌍을 이루어 설치되는 용이 조각된 천장에 사용되었다.

### (5) 칸(間 간)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서 ‘판반자’의 단위를 ‘칸(間 간)’으로 표기하였다. 창호의 단위는 대부분 ‘작(隻)’을 쓰지만 ‘칸(間)’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문틀까지 갖춘 완전한 상태일 경우에 쓰이듯이 이 경우도 반자들까지 갖춘 완전한 상태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의 일부 작업소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 영춘헌의 기록에는 마루 구성재를 따로 기술하지 않고 마루의 칸 수만을 기록하였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영춘헌을 짓는데 구재(舊材)로 7.5칸의 마루가 쓰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루의 구성재를 언급하지 않고 ‘마루(抹樓)’라고만 하여 칸 수를 표기한 경우 역시 모든 마루 구성재를 갖춘 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조의 영건의례에 기록된 수장재에서 ‘좌(坐)’, ‘부(部)’, ‘칸(間)’은 모두 구성재를 갖추게 되는 단위로 사용되었다.

## 3. 수장재의 명칭

### 3.1. 천장

#### (1) 반자판

영건의례에 나오는 반자와 반자판의 주된 용어로는 용판(龍板), 판룡(板龍), 부룡(浮龍), 봉반자판(鳳班子板), 봉판(鳳板), 목단반자판(牧丹班子板), 화반자(花班子), 지반자(紙班子), 판반자(板班子), 순각반자판(純角班子板) 등을 들 수 있다.

판룡(板龍)과 부룡(浮龍)은 쌍(雙)을 단위로 하였고 용판(龍板)은 좌(坐)를 단위로 한 것으로 보아 용판(龍板)에 판룡(板

龍)이나 부룡(浮龍)이 설치되는 보개천장의 구성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용이 아닌 봉황을 새긴 예가 봉반자판(鳳班子板) 또는 봉판(鳳板), 목단을 새긴 예가 목단반자판(牧丹班子板)으로 보인다.



<그림 1> 보개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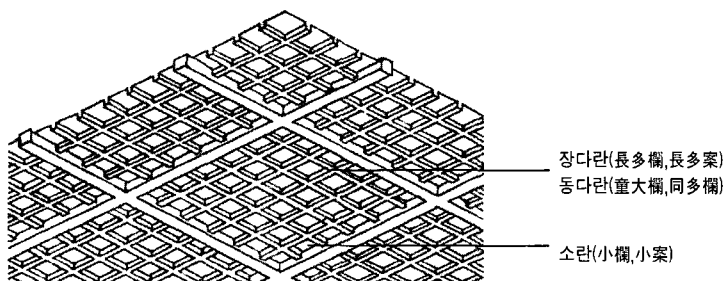
화반자는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花班子로 대부분 표기되어 있지만 4소의 경우는 壽班子로 표기하였다. 화반자는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에 의하면 우물반자의 다른 용어로 볼 수 있다. 즉, 우물정자로 짠 반자들에 판자판을 덮고 단청을 한 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반자는 종이를 바른 평명한 종이반자이고 판반자는 긴 널을 붙인 널반자로 보인다.

순각판(巡閣板), 순각판(順角板), 승각판(崇閣板)은 모두 같은 용어로 생각되는데 각 출목 사이사이를 첨차 위쪽에서 박아 댄 반자널<sup>4)</sup>을 말한다.

## (2) 반자들을

반자들은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에 의하면, 천장에 널, 합판 등을 붙이거나, 미장바름 바탕으로 졸대를 대기 위하여 꾸미는 틀로서 반자대, 반자대받이, 달대, 달대받이 등으로 짠다고 되어 있다.



<그림 2> 반자들

영건의궤에 나타나는 반자들에 해당되는 용어로 대란(大欄), 반자다란(班子多欄), 반자다안(班子多案), 다안리(多案里) 등은 반자대로서 반자를 꾸미는 틀재를 말하는 것으로 다라니라고도 한다. 그리고 장다란(長多欄), 장다안(長多案)은 우물반자에서

길게 건너지르는 반자대를, 동대란(童大欄), 동다란(同多欄), 단다란(短多欄)은 짧게 건너지르는 반자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란(小欄), 소안(小案)은 우물반자의 다라니틀의 한 정간(井間) 사방에 반자널을 받도록 댄 소란을 말하는 것으로, 굵은 재로 넓게 우물을 짠 다음 그 안에 가는 살을 격자로 짜는 것<sup>5)</sup>을 말한다.

## (3) 기타

그 외에 천장 구성재로 언급된 용어로 현목(懸木)이 있는데 이는 달대를 말하며 반자울리목(班子芝里木)으로 표기된 명칭은 반자오리목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반자오리목은 반자틀에 쓰이는 작은 각재 혹은 가늘게 오린 나무<sup>6)</sup>를 말한다.

## 3.2. 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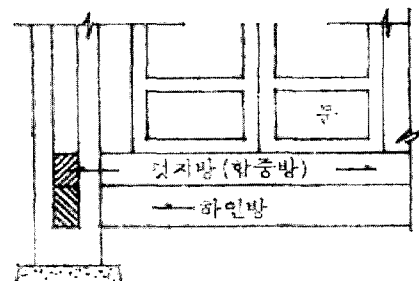
### (1) 인방

인방은 기둥과 기둥 또는 벽선에 가로질러 벽체의 뼈대 또는 문틀이 되는 가로재로서 상인방, 중인방 및 하인방의 총칭이고, 상중하 인방을 각기 상방, 중방 또는 하방이라 하고 인방이나 액방은 상인방을 뜻하기도 한다.<sup>7)</sup>

인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引方으로 표기하였으나, 이후 다른 영건의궤에서는 引防으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인방은 引方에서 引防으로 같은 명칭의 표기가 변화하였다.

중인방을 표기할 때, 인조조에 발간된 의궤에는 中引防이라고 하였고, 순조조에 발간된 의궤들과 철종조에 발간된 『인정전중수의궤』에는 引中防이라고 하였으며, 고종조에 발간된 의궤에는 다시 中引防이라고 표기하였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 나오는 합인방(合中防)은 하인방이나 문지방 위에 인방을 겹쳐 놓아 문턱을 높이거나 인방을 보강하는 것이다.



<그림 3> 합중방  
출처: 장기인, 앞의 책, p.152

지방은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地方과 地防이 함께 쓰였고 이후 地防으로 쓰였다. 지방은 문지방을 말한다.

4)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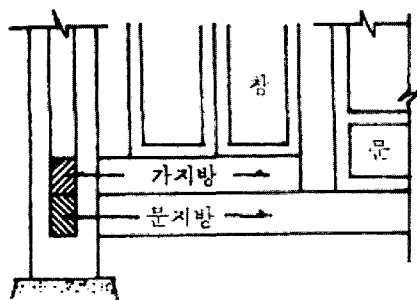
5) 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p.368 참조

6)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393 참조

7) 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p.150

가지방은 문지방 위에 덧대어 기둥과 벽선 사이에 이중으로 건너지른 창지방<sup>8)</sup>을 말한다. 가지방은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加地方으로 표기되었고, 『창덕궁수리도감의궤』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 등에는 假地防으로 표기되었으며,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加支防으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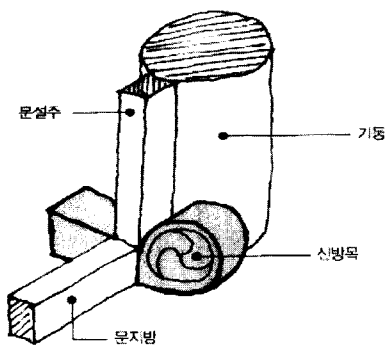
가지방이 합중방과 다른 점은 합중방은 하인방위에 겹쳐 놓아 기둥까지 같이 가는 반면 가지방은 좌우 벽선 안쪽으로 덧대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림 4> 가지방  
출전:장기인, 앞의 책, p.152

신방은 일각문 또는 일주문의 기둥 또는 벽선 밑에 가로 놓아 용지판 또는 버팀목을 받는 부재로서, 신방돌 위에 대어 기둥을 끼어 고정하고 전도를 방지<sup>9)</sup>하는 것이다.

신방은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信方으로 표기되었으나 이후의 영건의궤에는 信防으로 표기되어 인방재를 '方'으로 표기하였다가 '防'으로 표기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신방  
출전:김왕직, 한국건축용어, 발연, 2000, p.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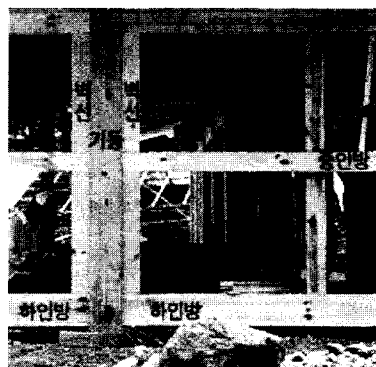
그 외에 창호의 종류에 따라 교창인방(交窓引防), 사창인방(斜窓引防), 쌍창인방(雙窓引防), 소쌍창인방(小雙窓引防), 분합인방(分閤引防), 단분합인방(短分閤引防), 만전분합인방(滿箭分閤引防), 선작이인방(楨作耳引防), 연창인방(連窓引防), 추장자인방(推障子引防), 누문인방(樓門引防), 벽장문인방(壁幪門引防), 대문인방(大門引防) 등이 영건의궤에 표기되어 있다.

## (2) 벽선

벽선은 기둥과 벽 사이에 세운 각재를 말하는데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壁線으로 표기하였으나 이후의 영건의궤에는 壁楨으로 표기하였다. 壁楨의 楨은 우리말로 '흰'으로 읽히지만 벽선을 표기한 데에는 '선'으로 읽는다.

벽선은 인방의 경우에서처럼 창호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나타나는데 교창벽선(交窓壁楨), 사창벽선(斜窓壁楨), 쌍창벽선(雙窓壁楨), 소쌍창벽선(小雙窓壁楨), 분합벽선(分閤壁楨), 단분합벽선(短分閤壁楨), 벽장문벽선(壁幪門壁楨) 등이 영건의궤에 언급되어 있다.

토벽선은 기둥 옆에 흙벽을 직접 기둥에 닿지 않게 기둥면에 세워 대는 벽선을 말한다.



<그림 6> 벽선  
출전:김도경, 한옥살림집을 짓다, 현암사, 2004, p.252

선단은 문설주<sup>10)</sup>를 말한다. 선단은 인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縮單으로 표기되었고 순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 등에는 楨端으로 표기되었으며, 고종조에 발간된 『중화전영건도감의궤』와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楨單으로 표기되었다. 그리고 철종연간에 발간된 『인정전중수의궤』에 문선(門楨)이라고 표기한 부재 역시 선단에 해당된다.

영건의궤에 용지판(龍脂板)으로 쓰인 용지판은 두껍게 쌓은 돌담이나 화방벽의 옆면을 아무리기 위하여 기둥 옆면에 세워 대는 널을 말한다.

## (3) 머름

인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 기록된 '원험(遠驗)'과 이후 영건도감의궤에 '원음(遠音)'으로 기록된 부재는 머름을 말한다.

머름은 창 밑의 하인방과 창틀(창지방) 사이에 머름동자를 세우고 널로 막아댄 부분<sup>11)</sup>이다.

영건의궤에는 머름 구성제에 해당되는 주된 용어로 원음중방(遠音中防), 원음죽(遠音竹), 원음동자(遠音童子), 어리동자(於

8)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p.151

9)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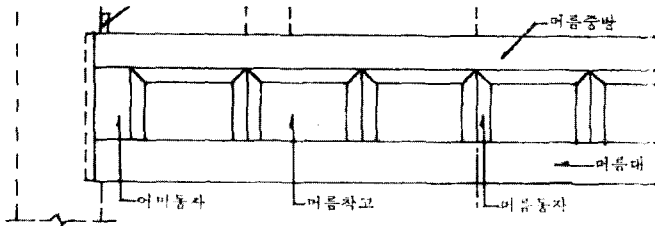
10)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108

11)장기인, 위의 책, p.106

里童子)가 기록되어 있다.

원음중방(遠音中防)은 머름중방이라고 하여 머름틀에서 위에 가로 낀 인방을 말하며, 원음죽(遠音竹)은 머름대라고 하여 머름틀에서 가로 낀 하인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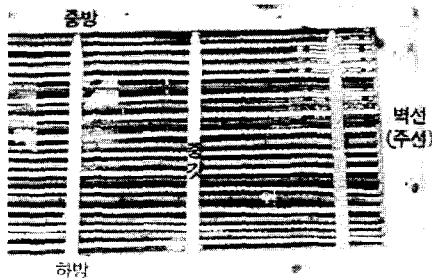
또한 원음동자(遠音童子)는 머름동자라고 하는 것으로 머름대와 머름중방 사이에 일정간격으로 세운 짧은 재이며, 어리동자(於里童子)는 어미동자, 또는 어의동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머름에 있어서 기둥 옆에 세운 넓은 동자주를 말한다.



<그림 7> 머름  
출전:장기인, 앞의 책, 1993, p.153

#### (4) 중깃, 띠장

벽체를 구성하는 다른 부재로 중깃이 있는데 영건의궐에는 중급(中幹), 중급목(中幹木)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깃은 상하인방에 세워 대서 윗가지를 엮어대는 가는 나무<sup>12)</sup>를 말한다.



<그림 8> 중깃  
출전:김도경, 앞의 책, p.261

또한 영건의궐에 대목(帶木)이라고 한 것은 띠장을 일컫는 용어로서 벽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부재이다. 띠장은 판벽에 있어서 널을 박아대는 가로 댄 부재<sup>13)</sup>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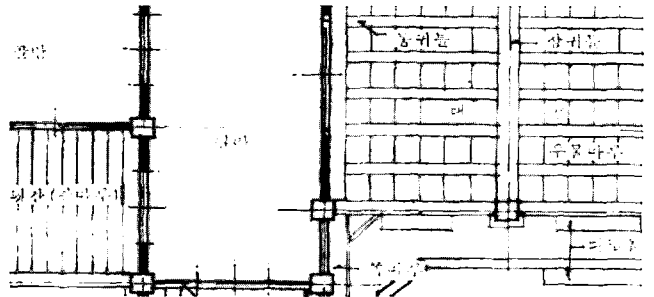
띠장은 중깃처럼 가는 목재이지만 세로로 세워 댄 중깃과는 달리 가로로 건너 댄 윗가지이다.

### 3.3. 마루

마루는 놓는 방법에 따라 우물마루와 장마루로 분류할 수 있다.

우물마루는 대청이나 마루간의 전후 기둥에 장귀틀을 건너 지르고 거기에 직각으로 동귀틀을 걸은 사이에 짧고 넓은 널을 끼워댄 마루<sup>14)</sup>를 말한다.

장마루는 한 방향으로 걸린 귀틀 위에 폭이 좁고 긴 마루장을 촘촘히 이어 붙여 깐 마루형식이다.<sup>15)</sup>



<그림 9> 마루의 종류와 구성  
출전:장기인, 앞의 책, p.329

#### (1) 귀틀

우물마루를 이루는 귀틀은 장귀틀과 동귀틀로 이루어져 있다. 인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서 귀틀을 표기하는데 귀기(歸機)와 이기(耳機)를 같이 사용하였으며, 이후의 영건의궐에서는 이기(耳機)로 표기하였다.

다른 수장재의 명칭은 표기법에 있어서는 다소 변화가 있더라도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귀틀의 구성재에 대한 표기는 내용이 각 시대의 의궤마다 매우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다.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서 언급된 귀틀의 구성재로는 이기(耳機;귀기(歸機))와 단이기(短耳機)가 있다. 그런데 단이기(短耳機)는 작업소 제 4소에서 인경궁을 철거하여 사용한 재료에만 사용되었고 그 수량도 그 작업소에서만 이기(耳機;귀기(歸機))가 291개가 사용된데 비해 단이기(短耳機)는 6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서는 귀틀을 장귀틀과 동귀틀을 구분하지 않고 이기(耳機;귀기(歸機))로만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순조조의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는 이기(耳機), 단이기(短耳機), 동이기(童耳機), 장동이기(長童耳機), 단동이기(短童耳機)가 언급되어 있다. 이기(耳機)에는 이기(耳機)와 단이기(短耳機)가 있고 동이기(童耳機)에는 동이기(童耳機), 장동이기(長童耳機), 단동이기(短童耳機)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장귀틀과 동귀틀에 해당되는 용어는 이기(耳機)와 동이기(童耳機)에 해당되며, 이기(耳機)는 장귀틀, 동이기(童耳機)는 동귀틀로 보인다. 같은 순조조의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이기(耳機)는 이기(耳機), 장이기(長耳機), 동이기(童耳機)는 동이기(童耳機), 장동이기(長童耳機), 단동이기(短童耳機), 반간동이기(半間童耳機)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이기(耳機)는 모든 건물에 사용되었으나 장이기(長耳機)는 함인정(涵仁亭)에만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장귀틀은 이기(耳機)로 볼 수 있다. 즉, 순조조의 영건의궐에서는 장귀틀은 그냥 이기(耳機)로 표기하고 동귀틀은 동이기(童耳機)

12)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p.164

13)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109

14)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p.329

15)김왕직, 한국건축용어, 발언, 2000, p.161

로 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종조의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동이기(同耳機), 단동이기(短同耳機), 반간동이기(半間同耳機), 간동이기(間同耳機), 간반동이기(間半同耳機), 입이기(立耳機), 반간입이기(半間立耳機)가 언급되어 있다. 즉, 크게 동이기(同耳機)와 입이기(立耳機)로 구분하여서 오늘날의 장귀틀과 동귀틀로 말하는 것과는 다소 다르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의 대부분 건물에서는 동이기(同耳機)와 입이기(立耳機)로 구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즉조당과 영복당은 간반동이기(間半同耳機), 간동이기(間同耳機), 반간동이기(半間同耳機)와 입이기(立耳機)로 구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즉조당의 경우 간반동이기(間半同耳機)의 크기는 길이 12尺, 폭 7寸, 두께 7寸이다. 短間同耳機는 길이 8尺, 폭 7寸, 두께 7寸, 半間同耳機는 길이 4尺, 폭 7寸, 두께 7寸이다. 즉 동이기(同耳機)는 길이를 달리 하지만 폭은 7寸, 두께는 7寸으로 같이 하는 부재이다. 입이기(立耳機)의 크기는 길이 8尺, 폭 6寸, 두께 4寸인 부재이다. 즉 동이기(同耳機)보다 두께의 치수가 작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 기록된 주요 전각에 사용된 귀틀 부재의 명칭과 치수는 다음과 같다.

<표 5>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 나오는 귀틀 부재의 명칭과 치수

건물명	부재 명칭	長(尺)	廣(寸)	厚(寸)
즉조당	間半同耳機	12	7	7
	短間同耳機	8	7	7
	半間同耳機	4	7	7
	立耳機	8	6	4
영복당	間半同耳機	11尺 5寸	8	8
	間同耳機	9	8	8
	半間同耳機	4	8	8
	立耳機	9	7	4
함녕전	同耳機	12	1尺	8
		10	8	8
		6	8	8
	立耳機	10	8	4
석어당	同耳機	12	1척	8
	短同耳機	6	8	8
	立耳機	9	7	4
함희당	同耳機	18	8	8
		5	8	8
	立耳機	9	7	4
준명당	同耳機	13尺 5寸	8	8
		9	8	8
	立耳機	9	8	4寸 5分
		4	5	4寸 5分
훈문각	同耳機	18	8	8
		5	8	8
		12	8	4寸 5分
	立耳機	10	8	4寸 5分
함유재	同耳機	5	8	4寸 5分
		12	6寸 5分	7
	立耳機	4	6寸 5分	7
양이재	同耳機	8	7	4
		18	8촌 5分	8촌 5分
	立耳機	5	8	7
		9	7	4
		5	7	4

따라서 기둥 사이를 건너지르는 장귀틀에 동귀틀이 결합하는 구조에서 장귀틀의 두께는 동귀틀보다 치수가 커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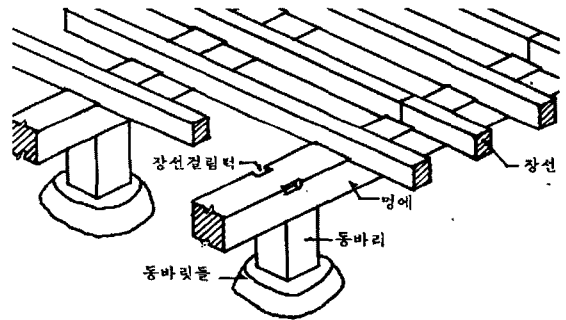
따라서 동이기(同耳機)와 입이기(立耳機)의 결합을 고려할 때 동이기(同耳機)가 장귀틀이고 입이기(立耳機)가 동귀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0> 장귀틀과 동귀틀  
출전:김도경, 앞의 책, p.291

## (2) 장선, 동바리

장선은 멍에 또는 보에 건너대어 마루널을 박아대는 가로재<sup>16)</sup>이며, 동바리는 멍에, 장선받이 등을 받치는 짧은 기둥이다. 장선은 순조조에 발간된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장산이(長散伊)로 표기하였고 고종조에 발간된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장산이(長散里)로 표기하였다. 표기된 글자만 다를 뿐 명칭은 같다. 동바리는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 동발이(童發伊)와, 동발이(童發里)가 쓰였으며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동발이(童發伊)가 쓰였다. 이 역시 표기한 글자만 다를 뿐 명칭은 동일하다.



<그림 11> 장선과 동바리  
출전:장기인, 앞의 책, p.328

## (3) 청판

청판은 마루에 까는 널, 혹은 널의 통칭<sup>17)</sup>이다. 영건의궤에 나오는 청판의 표기로는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만 靑版으로 표기하였고 이후의 영건의궤에는 廳板으로 표기하였다.

청판의 종류로는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 길이에 따라 장청판(長廳板), 단청판(短廳板)을 기록하였고,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위치에 따라 퇴장청판(退長廳板), 가퇴장청판(假退長廳板), 마루장청판(抹樓長廳板), 누장청판(樓長廳板)을 기록하였다.

16)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p.113

17)장기인, 위의 책, p.114

### 3.4. 난간

#### (1) 난간두겹대

난간의 맨 위에 건너대어 손스침이 되는 부재를 난간두겹대라고 한다. 이를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 난간죽(欄干竹)으로 표기하였고, 순조조의 『창덕궁영건도감의궤』와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는 난간죽(欄干竹)과 원죽(圓竹)이 모두 사용되었다. 한편, 고종조의 『중화전영건도감의궤』와 『경운궁중건도감의궤』에는 굴죽(屈竹)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영건의궤에 표기된 난간죽(欄干竹)은 위치에 따른 명칭으로 상하죽(上下竹), 중죽(中竹)이 표기되기도 하였다.

#### (2) 난간동자

난간동자는 돌란대를 받치는 짧은 기둥을 말하는데 영건의궤에서는 동자(童子)라고만 표기하였다. 영건의궤를 기록할 때는 구조재와 수장재가 구분되어 보통 구조재를 앞에 기록하고 난 후 그 뒤에 수장재를 기록하게 된다. 여기서 구조재로 쓰이는 ‘동자주(童子柱)’와는 구분하여 난간동자로 쓰인 ‘동자(童子)’는 항상 수장재의 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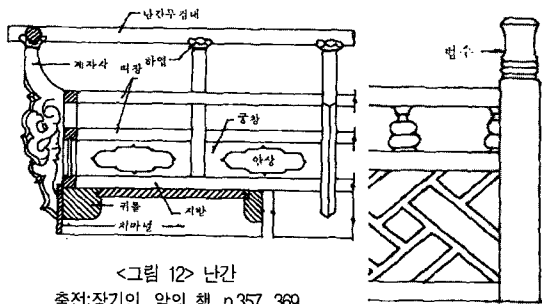
동자(童子)는 크기에 따라 대동자(大童子)와 소동자(小童子)를 구분하기도 하였지만 시대에 따른 변화는 없었다.

#### (3) 기타

난간을 장식하는 부재로 하엽과 계자각을 들 수 있는데, 하엽은 돌란대를 받치는 연꽃 모양의 장식으로서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연엽(蓮葉)이라고 하였으나 이후의 영건의궤에는 하엽(荷葉)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자각은 밖으로 휘어진 판대에 의하여 난간두겹대를 받치는 부재로 인조조의 『창덕궁수리도감의궤』에는 계대(鷄帶)라고 표기하였으며 순조조의 『창덕궁영건도감의궤』에는 계자다리(鷄子多里)라고 표기하였다.

그 외에 난간을 구성하는 부재의 명칭으로 허혈청판(虛穴廳板)이 있는데 난간청판을 말하며, 난간엄지기둥 상부에 놓여 장식하는 부재인 법수(法首)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 12> 난간  
출전: 장기인, 앞의 책, p.357, 369

### 4. 결론

영건의궤는 조선시대의 공사 내용을 기록한 자료로서 다양

한 명칭의 수장재 용어가 기록되어 있다.

우선, 수장재의 단위를 보면, 영건의궤에 기록된 수장재에서 주로 쓰인 단어는 ‘개(箇)’와 ‘입(立)’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에 좌(坐), 부(部), 짝(隻), 쌍(雙), 칸(間)이 사용되었다. 여기서 ‘개(箇)’는 판재가 아닌 자재의 단위들에 사용하였으며, ‘介’에서 ‘箇’로 표기법이 변화하였다.

한편, 각 수장재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천장 : 영건의궤에서 순각판은 巡閣板에서 順角板, 崇閣板으로 표기법이 차차 변화하였다. 반자틀은 대란(大欄)에서 다란(多欄), 다안(多案)으로 표기법이 차차 변화하였으며 소란(小欄)에서 소안(小案)으로 변화하였다.

(2) 벽체 : 영건의궤에서 인방을 뜻하는 ‘방’은 ‘方’에서 ‘防’으로 표기법이 변화하였다. 가지방은 加地方에서 假地防, 加支防으로 표기법이 차차 변화하였다. 그리고 벽선은 ‘벽선(壁線)’으로, 머름은 ‘원음(遠音)’으로, 중깃은 ‘중금(中衿)’으로 표기하였다.

(3) 마루 : 마루의 귀틀은 처음에는 이기(耳機; 귀기(歸機))로만 표기하였다가, 장귀틀은 이기(耳機), 동귀틀은 동이기(童耳機)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고종조의 영건의궤에는 장귀틀은 동이기(同耳機), 동귀틀은 입이기(立耳機)로 표기하여 오늘날의 명칭과 전혀 다르다. 장선은 長散伊, 長散里로 표기하고, 동바리는 童發伊, 童發里로 표기하였다. 청판은 靑版에서 廳板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4) 난간 : 난간두겹대는 난간죽(欄干竹), 원죽(圓竹), 굴죽(屈竹)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영건의궤에는 구조재로 쓰이는 ‘동자주(童子柱)’와는 구분하여 난간동자로 쓰인 ‘동자(童子)’는 항상 수장재의 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장재의 명칭에 대한 연구는 추후 궁궐의 공사를 기록한 영건의궤 뿐만 아니라 다른 의궤에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창경궁수리도감의궤, 인조 11년
2. 창덕궁수리도감의궤, 인조 25년
3. 저승전의궤, 인조 26년
4.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효종 3년
5.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 효종 8년
6. 서궐영건도감의궤, 순조 32년
7. 창경궁영건도감의궤, 순조 34년
8. 창덕궁영건도감의궤, 순조 34년
9. 중화전영건도감의궤, 광무 8년
10. 경운궁영건도감의궤, 광무 10년
11.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8
12. 장기인, 목조, 보성각, 1993
13.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발언, 2000
14. 김도경, 한옥살림집을 짓다, 현암사, 2004

<접수 : 2005. 2. 25>